복음신문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許可（毎月一日発行）
2019년 10월 1일 (화) 제 788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김 종 현 · 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青丘文化社

설 교

미완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3:14>

김 성 태 목 사 (호주 유학중)

모세의 소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출애굽기 3장은 구약성서의 여러 구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3장을 유독 많이 읽는 또 다른 이유는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극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불안해 하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14절에서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기록된 히브리어 אֶהְיֶה אֲשֶׁר אֶהְיֶה (에히에 아셀 에히에)가 나타내는 의미의 폭은 넓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어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개역개정), "나는 곧 나다" (공동번역),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현대인의 성경)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영어역 중 하나인 "I am who I am" 은 위의 한국어 번역들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번역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 두 번이나 사용 되고 있는 히브리어 "에히에" 가 동사 הָיָה (하야) 의 미완료형이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한다면 위의 번역과는 뉘앙스를 달리하는 번역도 가능할 것입니다. 동사가 미완료형일 때 그 문맥과 상황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I am who I am" 은 '현재' 가 강조된 번역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미완료형이 가진 의미의 폭을 살린다면 "I will be what I will be" 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 번역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중세의 랍비들을 통해 이루어진 번역 중 하나 입니다. 우리는 이 번역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부터 인도해 낼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I will be what I will be" 라는 표현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 이었고(과거), 이며(현재), 일것인가(미래)를 모르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앞으로 나타낼 나의 모습 (what I will be) 를 목격함으로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구원" 을 통하여 스스로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14절의 "에히에 아셀 에히에" 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일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 라는 표현은 일번적인 이름의 형식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름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방법' 으로 이 표현을 이해 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십계명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는 계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문자 "YHWH" 에는 발음 할 수 없도록 모음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오리엔트 세계에서 '이름을 부르거나 짓는' 행위에는 그 대상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둔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했던 것은 자신의 이해의 범위 속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름' 속에 제한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에히에 아셀 에히에" 는 끊임 없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 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 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처럼…우리를…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이 전문은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 현실이 "I will be what I will be"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미완료' 의 역사 안에 있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악화되어 가는 한일관계는 재일 코리안들의 숨통을 조이고 때로는 큰 절망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은 이 역경에 맞서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 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끊임 없이 스스로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72ページ
●価格：3,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제4회 상임위원회 열어

제55회 정기총회 헌의안 등 심의

제54회 총회기 제4회 상임위원회가 2019년9월17일 나고야교회에서 개최되어 상임위원 21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각종 보고, 안건심의, 제55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헌의안 등을 심의하였다.

정기총회에 상정 될 주요 헌의안은 다음과 같다.

- 신학고시위원회가 상정한 세칙 제8조 추가항목, 3항 〈宣教協約을 맺은 教団에서 宣教師가 夫婦로 派遣된 경우, 宣教師考試基準이 충족되면 宣教師 加入考試를 볼 수가 있다.〉의 건.
- 정기총회 총대에 관한 총회 규칙 제3장 3조 1항의 변경 〈총대는 지방회가 세례교인 25명당 시무목사 또한 시무장로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 총대로 한다. 남은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 1명씩 증원할 수 있다. 단 선교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의 총대만이 총대가 될 수 있다.〉의 건. (각 지방회에 있어서 시무 목사 · 시무장로의 인수가 현저하게 불균형임을 고려하여 많은 목사, 장로가 총대로 참석시키기 위해)
- 선교위원회가 상정한 〈제9회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회의〉 개최에 따른 〈준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건.
- 연금위원회가 상정한 연금 규칙의 폐지와 폐지 후의 자금 분활과 자금 분활에 따른 「구제 기름 위원회 설치」의 건.
- 기타 예산안, 각 기관의 이사, 감사의 추천안 등이 상정되게 되었다.

青年会全協

정기 전국 협의회 개최

신 대표에 이지희 선출

지난 9월15일(주일)−17(월), 청년회 전국협의회(이하, 전협) 제57회 정기협의회가 요코하마교회에서 개최되었다. 14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개회예배에는 신도위원장 김신야목사가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 (마9 : 35−37)의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다. 우리들 크리스챤이 분이 나거나 슬퍼졌을 때, 예수님을 본 받아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개회예배 후에 요코하마교회 여성회 여러분들이 맛있는 저녁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좋은 식탁교제를 하였고 총회에 들어갔다. 2018년도의 활동내용과 총괄을 각 부, 각 지방, 각 담당자로부터 받고 첫 날을 마쳤다.

둘째날에는 토의사항 검토와, 신임원 선거가 있었다. 2019년도는 대표 : 이지희, 부대표 : 나카노 아키노리, 총무 : 엄 지용, 서기 : 이누이 하루키를 필두로, 그 외 5명의 청년을 각 부 담당자로 정하였다. 전체 임원 9명 중, 4명이 새롭게 임원을 시작하는 청년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폐회예배에는 고성목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마5 : 43−48)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고, 다른 청년 단체와는 달리 우리들이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모여있는 의미와, 그러한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시간이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1 년간을 「이렇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 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 이지희)

関西女性会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

관서 14교회가 참가하여 찬미 경연

2019년9월8일 주일오후에 관서지방교회 여성연합회 주최로 제 29회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 이 오사카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개회예배는 관서지방회회장 임명기목사(교토교회)의 설교가 있었다.

제2부는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 이 진행되었다. 관서지방 14교회의 여성회가 참가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심사를 하는 동안에 일본그리스도교회 ‘닛키 긴키 콜 성가대’ 와 ‘관서지방회청년연합회’ 의 특별 출연도 있었다. 심사위원장 윤성택 장로의 총평이 발표되고 각각 상장과 상품이 수여 되었으며 페스티발 상은 교토교회가 차지했다.

(보고 : 시로노 세이카)

関東女性会

찬양과 말씀의 밤을 개최

관동 10교회가 참가하여 찬미 경연

2019년9월22일(주),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의 주체로 〈찬양과 말씀의 밤〉이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개회예배는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구자우 목사의 〈새시대를 섬기는 여성〉(롬12:1～2)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제2부에서는 10교회에서 220여명이 참가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다. 심사하시는 동안 요코하마교회의 성무팀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피로했다. 이번에는 우승이 요코하마교회, 준우승 가와사키교회, 인기상에는 요코스카교회가 수상했으며 나머지 7교회는 노력상으로서 상품은 한국의 신라면 2박스가 증정되었다.

(보고 : 이은주)

青年会全協

제70회 하기수양회 개최

하기수양회 70년의 걸음 돌아보다

2019년 8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청년회전국협의회 주최로 '제70회 여름 수양회' 가 아이치현 신시로시의 '아이치 켄민의 숲' 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48명의 청년이 참가했고 그 중 11명은 한국에서 온 선교 팀이었다.

개회예배에서는 이명충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참석자 개개인이 이곳에 모여진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일어날 기적을 기원하며 수양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첫날 저녁은 토요하시교회의 봉사로 불고기와 김치가 제공되었고 목사님들이 만들어 주신 카레라이스를 먹었다.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자연에 둘러싸여 먹는 불고기와 카레라이스는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대표의 발제를 통해 캠프 파이어의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어려움과, 그러나 거기서 우러나오는 깊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성경 워크숍을 가졌다. 중앙위원의 간증을 통해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함,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배운 후, 모든 참가자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계명' 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찾아낸 계명 중에서 자신이 실천해 나가고 싶은 계명을 한사람 한사람이 발표했다. 그 후 예수님이 하셨던 '발 씻기' 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김신야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 세족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김신야 목사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셨고 참가자들이 짝을 이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세를 스스로 행해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도로 마칠 수가 있었다.

둘째 날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참가한 선교 팀의 기도회였다. 찬양 봉사(BLM)의 멋진 연주 속에서 찬양을 하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의 진심어린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충만되어 갔다. 홍정표목사님은 메시지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1-2)" 라는 말씀은 마치 청년의 마음 같다고 말씀하셨다. 청년 특유의 고민과 갈등,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직시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입고 도움을 받고자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청년 한사람 한사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셋째 날은 여름 수양회 7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런 교회가 좋겠다" 는 제목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 이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의 자신을 향한 편지를 썼다.

폐회예배에서는 아라이유키목사님이 메세지를 전하셨다. 이번 수양회의 테마인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운다" 라는 말씀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음이 연결되어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청년들과 함께 2박 3일을 보낸 기적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믿고 함께 기뻐하며 울 수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기도한다.

岐阜教会

정인선장로 장립식 거행

무토 마유미 명예집사 추대식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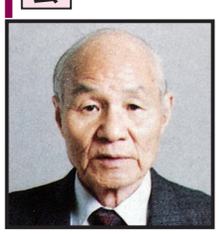
2018년7월28일(주일) 기후교회 정인선장로 장립, 武藤まゆみ 명예집사 추대식이 거행 되었다. 당회장 고성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정수환목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벧전 5:1~4)라는 제목으로 설교 하였다. 계속해서 중부지방회장 정수환목사의 사식으로 장로 장립식이 진행 되었으며, 고성목사의 사식으로 武藤まゆみ명예집사 추대식도 진행되었다.

금번에 장립을 받은 정인선장로는 1952년에 한국에서 출생하여 1988년에 도일, 1992년에 기후교회 집사로, 2013년에 권사로 취임하였으며 기후교회 및 중부지방회 여성회 연합회 등에서 봉사하였다. 가족으로는 남편 우스이테츠오 집사와 3남 1녀가 있다. (보고 : 고성목사)

名古屋教会

박헌섭명예장로가 소천

총회 부총회장 역임, 교회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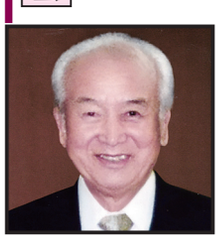
나고야교회 박헌섭 명예장로가 지난 2019년8월19일, 노환으로 소천하였다.(향년100세)

고 박헌섭 명예장로는 1919년에 한국에서 출생하여 도일 후에 1943년에 세례를 받고 1961년에 장로로 장립을 받은 후에 나고야교회, 중부지방회 및 제38회기 (1985년~1987년) 부총회장으로 섬겼다.

京都教会

윤재왕명예장로가 소천

반세기에 걸쳐 장로로서 교회 봉사



지난 9월24일(화)에 교토교회 윤재왕 명예장로가 입원중이던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향년 92세). 고 윤재왕 명예장로는 1927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도일, 그 후 교토교회에 입교하여 1955년에 서례를 받고 1962년에 교토교회 장로로 장립되어 1998년 5월에 명예장로로 추대되기 까지 교회와 총회를 위해 봉사하시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다.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呉 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방문 수기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방문기 〈1〉

오사카교회 정 연 원 목사

이 글은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 '총회') 대표단이 2019년 7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 으로) 조선그리스도련맹(이하 '조그련' 으로)방문 후, 참가한 정연원목사(선교위원장)의 개인적 소감을 정리하여 전한다.

1. 방문 목적

이번 대표단 방문은 우리 총회가 1981년 이후 분단 상황에 있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독자로서 계속적인 기도와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1990년부터 2002년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해 왔던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도교회의" 의 의미를 되찾고, 2020년에 제9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그련' 과의 협의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대표단(총간사 김성제목사외 3명)은 과거 역사에 대한 사죄문을 '조그련' 에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2. 방문전 준비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우리민족은 분단의 상처를 안고 7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고 있다. 특히 여러가지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한 체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는 보이지 않는 휴전선을 긋고 이곳에서도 이웃하며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공화국' 을 방문하기 힘든 상황과 재일동포 가운데 '공화국' 국적은 가지 동포들은 일본의 재입국을 위해 일본 정부가 만들어 주는 '재입국허가증' 을 만들어야 했다. 출입국관리소에 신청을 하고 담당자의 면담이 있었다. 내용은 북한방문의 자숙요청과 세부적으로는 재일북한당국의 직원, 혹 이를 보좌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과 대북조선(對北朝鮮) 무역, 금융조치에 관한 위법행위로 형(刑)이 확정되거나 재일외국인이 핵, 미사일관련 업무를 할 경우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지 않거나 혹 했을 경우 재입국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요구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확인한 '재입국허가증' 을 발급해 주었다. 동시에 한국정부에도 북한방문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공화국 방문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평양으로 입국하는 일정이 확정되었다.

3. 평양으로

7월26일(금) 북경행 중국항공의 탑승을 위해 총회장과 전국교회여성연합회장을 포함한 우리 일행 3명을 칸사이공항 세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좁은 방으로 들어가 우리 일행의 북한 방문의 목적과 여행 소지품을 세밀하게 검사하였다. 특히 일본돈 10만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에게는 매우 까다롭게 체크를 하였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생활 가운데 처음 경험한 불쾌한 감정이었다.

칸사이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한국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비행경로 화면에서는 대전과 수원 사이를 지나면서 북쪽으로는 평양이라는 지점을 가르키고 있었다. 방향을 바꾸어 북으로 돌리면 30분에 갈 거리를 우리는 이렇게 중국을 경유하여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펐다.

북경 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동경에서 도착한 일행과 합류하였다. 그러나 북경 입국에도 문제가 생겼다. 일본 법무성이 발급해 준 허가증에는 중국비자, 공화국 비자(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수 밖에 없었다.

북경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시 평양행 비행기를 타야한다. 대표단이 타야할 비행기는 고려항공(JS152편/북경 출발13:05-평양 도착16:05)이 동체에 고려항공이라고 한글로 쓴 백색의 비행기가 서 있다.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에 관한 것을 설명해주었고 이륙후에 기내식이 제공되었다. 햄버거와 음료수였다. 두 개를 드신 분이 계신다. 실제적으로 비행시간은 2시간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부채질을 해야 할 상태였다.

평양이 가까워지면서 창공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도시가 강을 끼고 멀리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전형적인 한반도식 도시형성의 모습이었다. 대동강 줄기가 선명한 가운데 비행기는 평양공항에 착륙을 하였다. 활주로에는 대기 중인 비행기들이 많이 보였다.

입국장에서 처음 맞이하는 공화국 관리들, 입국 목적을 물어본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방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본 법무성이 만든 허가증에 입국허가 도장을 찍어주면서 공화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덕담(德談)을 주었다. 세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놀랄 일을 경험했다. 공화국 방문에는 휴대폰, 스마트폰은 공항에 압류를 했다가 출국할 때 돌려준다는 것과는 달리 전화기에 보관된 사진을 살펴본 후에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카메라 역시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모든 짐과 함께 돌려주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안내원과의 만남, 50대 여성이었다. 큰 키에 말투도 매우 명확하고 활발해 보였다. 준비된 승합자동차를 타고서야 개인적 소개와 인사를 나누었다. 먼저 안내원에게 물었다. 우리가 소지한 사진기나 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고 질문의 대답은 "자유롭게 찍어도 된다!" 는 것이었다.

평양 도착과 동시에 놀랄 일은, 스마트 폰과 사진 촬영의 자유로움이었다. 자동차는 평양시내를 행해 달라고 밖의 풍경은 논밭이 펼쳐진 농촌이었다. 잘 정비된 논과 낮은 언덕에도 농작물을 심어 둔 것이 특이 하다고 생각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자동차 밖으로 보이는 건물들 중에는 눈에 익은 건물도 있었다. 평양역을 지난 우리 자동차는 바로 호텔로 들어갔다. 시내까지의 도로는 잘 정비되어 30분 만에 대동강변에 위치한 대표단의 숙소인 '평양호텔' 에 도착하였다. 높이 5층 건물이 이 호텔은 재일동포 사업가의 투자로 30년 전에 지어진 것이라고 안내원이 설명을 해주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에 짐을 놓고 저녁식사를 위해 호텔 2층에 있는 식당으로 안내를 받았다.

넓고 깨끗한 식당이다. 우리 일행이 정해준 자리에 앉았을 때, 고등학생, 대학생 일행 60-70명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그런데 학생들은 일본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우리 대표단 일행은 놀랬다. 평양에서 일본말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만날 줄이야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협력자로 동행하신 조국평화통일협희 부회장 이선생님이 인솔자를 소개해 주셨다. 東大阪고등학교 교장, 조선대학교 교수, 신문사 기자도 있었다. 조총련 동포 학생들이 모국방문을 통해 우리 전통예술을 배우기 위해 한달 정도 평양에 체류하며 학습을 한다고 전해 주었다.

나는 조평통 이선생님께 물었다. "이선생님, 이 학생들이 공화국을 방문할 때도 우리 일행과 똑같은 절차를 밟고 방문을 하게 되느냐?" 대답은 우리들이 경험한 것을 이 어린 학생들이 경험하면서도 조국을 방문한다는 것에 다시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단이 도착한 날은 6.25동란 종전(승전) 기념일이었다. 노동신문의 첫면에는 큰 사진과 함께 실린 제목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6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이라고 쓰여져 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동란은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휴전협정이 성립된 날이다. 신문의 내용 중 일부분에서는 미국이 건국이래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으나 공화국과의 전쟁에서는 졌으며 공화국이 승리했다는 논조의 기사였다.

이렇게 시작된 대표단의 여정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계속되었다.